

# 호남표심 정권 재창출 열망...이재명 대세론 굳혀졌다

민주 광주·전남·전북 경선 마무리

전북서 압승 전체 득표율 과반 유지  
이낙연 자존심 지켰지만 추격 못해  
낮은 투표율에 경선 무관심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승을 거두고 '호남 대전'에서 유적 과반 득표율 사수에 성공, '대세론'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반면, 텃밭인 호남에서 대반전을 노렸던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전남에서 첫 지역 경선 1위를 차지하면서 자존심은 지켰지만, 이 지사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미있는 추격'에는 실패했다.

특히 이 지사가 '호남의 선택'을 통해 대세론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민주당 최종 후보는 다음달 3일 인천에서 진행되는 '2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2차 슈퍼워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두관 후보가 이날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데다, 전국 선거인단 투표율이 절반 가량에 그치고 있어 민주당의 대선 경선 흥행에 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정책과 비전 제시보다는 지나친 '상대 후보 흠잡기'로 치달으면서 당원과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전북 지역순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민주당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호남 대전'에서 완승했다. 전남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1위 자리를 내줬지만, 0.17%포인트 박빙의 차이로 '선택'한 뒤 이날 전북 경선에서 16.06%의 큰 득표율 차이로 이 전 대표를 따돌리면서 '호남 대전'의 승자가 됐다. 이 지사는 호남 대전 승리와 함께 전체 득표율 과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면서 '대세론'을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6회에 걸쳐 열린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광주·전남을 제외하고 5승을 거두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

인 호남에서 이 지사와의 표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역전의 기반을 다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 경선에서는 122표 차이로 이 지사를 따돌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자존심은 챙겼지만, 이 지사를 큰 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크게 빗나가면서 향후 남은 경선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호남 대전에서 호남민들은 여권의 두 선두 대권 후보들에게 적절한 표심을 보이는 '냉철한 선택'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애초 이 지사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이 지사의 대반전을 내다 보는 관측도 많았지만 이번 투표를 통해 호남인들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재명의 대세론과 '이낙연의 자존심' 대결 속에서 호남인들은 민주당에 많은 화두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호남 1위를 차지한 이 지사와 광주·전남 1위를 지킨 이 지사가 이번 호남대전을 통해 '민주당 원팀'의 토대를 놓는 게 '호남인의 마음'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논란이 확산하면서 호남 경선에서 호남인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호남 표심은 냉정한 판단 속에서 객관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득표율은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 경선 흥행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해졌다.

한편 민주당의 남은 경선 일정은 제주(10월1일), 부산·울산·경남(10월2일), 인천(10월3일·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경기(10월9일), 서울(10월10일·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등지에서 진행되며 49만6449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는 결선 투표 돌입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선 마지막 날 실시되는 3차 선거인단(30만5780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대선 레이스 종료로 불과 일주일 앞두고 지지층의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광주·전남 경선 결과발표가 끝난 뒤 5명의 후보들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이재명 "가짜뉴스로 민심 못 바꿔... 호남서 기대 이상 지지로 승리"

"대장동 의혹 국힘 정치인 더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전북 순회 경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 "압도적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분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호남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경선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남·광주·전북을 합한 호남 지역 전체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남 광주·전남 경선에서 근소하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밀렸으나 이날 전북 경선에서는 압승하면서 호남 전체로는 49.7%의 득표로 승

리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경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가짜뉴스, 견강부회, 적반하장으로는 세상의 민심을 바꿀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 문제로 의심을 받고 정치적인 손실을 보았으나 이것이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간의 커넥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이 없었더라면 5500억원조차도 환수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정치인이 나눠 가졌을 것인데 그나마 막은 것도 잘한 것이라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광상도 의원, 원유철 전 의원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 말고도 조사

하면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며 "성남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시 공공 개발하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당시 막았는데 그냥 가만히 물러났겠느냐. 저는 그 안에도 있을 가능성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꼭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에 대해 "탈당했다고 국민의힘이 토건 비리 세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신 차려라. 자기들이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을 못 막았다고 비난하면 되느냐. 이런 후안무치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김두관 후보 사퇴... "개혁 책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6일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경선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원팀으로 단결해서 4기 민주 정부를 세워야 한다. 오로지 그것 하나 때문에 사퇴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중도 하차는 누적 득표율이 0.68%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퇴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후보의 4파전으로 좁혀졌다.

그는 "대한민국에 산적한 개혁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개혁과제를 그래도 가장 수행할 책임자는 이재명 후보"라면서 "제가 꿈꾸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도 이 후보에 남긴다.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을 되찾기 위한 야권의 공세는 날로 강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가짜뉴스가 지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야 할 우리의 원팀은 갈수록 갈라지고 있다. 이대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하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당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이 후보가 과반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를 확정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 등을 고려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캠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윤석열 26.9%·이재명 25.2%·홍준표 16.8%·이낙연 12.5%

리얼미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여야 대선후보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접전을 벌이며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중위권 그룹에서 뒤를 쫓으며 '2강 2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26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26.9%를 기록, 2위인 이 지사(25.2%)를 1.7%포인트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홍 의원이 16.8%, 이 전 대표

가 12.5%로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3.1%), 유승민 전 의원(2.6%),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2.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1%), 최재형 전 감사원장(1.6%) 순이었다.

여야 유력 대권주자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43.1%의 지지를 받아 37.0%를 얻은 이 지사를 제쳤다. 두 후보의 격차는 6.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홍 의원과 이 지사의 양자대결에서도 홍 의원이 38.2%로, 이 지사(35.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차기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6%가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꼽았고, 38.5%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택했다.

한편, 차기 대선에서 여권 지지층은 윤 전 총장을, 야권 지지층은 이 전 대표를 상대하기 쉬운 후보로 각각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306명)에서는 응답자의 39.1%가 상대하기 유리한 후보로 윤 전 총장을 꼽았고, 홍 의원은 26.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422명) 중에서는 34.2%가 이 전 대표를 상대하기 유리한 후보로 선택했고, 이 지사는 26.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MG광남새마을금고

# 창립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 MG 뛰어라정기적금 1년 **4.0%** (조건부)
- MG NEW 정기적금 1년 **2.6%** (조건부)
- MG 더뱅킹 정기에금 1년 **2.1%**

**우대조건**

- MG스마트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
- 만기자동이체 등록
- MG더뱅킹을 이용한 이체거래 실적 6회 이상

**대출 상담 환영**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햇살론)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 애드밴스**

건설경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성사거리

광주시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돌고개역 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광주시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돌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